

중기·소상공인과 대박나는 동행축제...최대 반값 할인

중기부, 오늘~28일...온라인몰 등 203개 채널서 1만9천개 제품 광주 '충장라운페스타'서 중기 제품 특별전...5~6일 혼수의 거리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됐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열었던 동행축제를 올해는 3회 개최할 예정이다. 매출액 목표도 지난해(1조4000억원)의 2배가 넘는 3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슬로건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다.

확보했을 뿐더러, 제조사와 카드사, 통신사 등 대기업들도 캠페인 홍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촉전에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52개, 라이브커머스 9개,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9개, 공공배달업 13개,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60개 등 203개 채널이 참여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아이디어스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 46개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 유아용품, 패션잡화, 뷰티 제품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위메프와 티몬, 11번가 등 9개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는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방송 91회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TV홈쇼핑·T커머스는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카카오, 요기요, 쿠팡이츠, KT, LG 유플러스 등 O2O 플랫폼들도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참여한다.

전남도 역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 배달업 '막개비' '가정의 달 할인이벤트'로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동행축제와 연계해 이벤트 기간 소비자가 '막개비'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선착순 8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 결제 시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1만원 할인이벤트(5000원 2회 적용)도 계속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가 최초 주문을 하면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막개비와 현대자동차가 함께하는 특별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차는 막개비 가맹점주가 캐스퍼를 구매하면 2% 할인을 지원한다. 또 전남 지역 현대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응모 시 1만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동행축제의 가장 큰 차별성은 '지역 연계'다. 예년과는 달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각

지의 다양한 지역행사 30개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5월 첫 주에는 12개 지역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충장라운페스타'에서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다. 5일부터 6일까지 오후 2시~밤 9시 사이 충장로 4가 혼수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이천 도자기축제, 하동 세계 차(茶) 엑스포, 진주 논개축제, 영주 선비문화 축제 등 지역축제는 물론, 춘천 불빛장터와 천안 소소마켓 등 지역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지역특색을 살린 즐길거리와 살거리 등을 제공한다. 방침이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중소기업 정책매장 8곳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이 진행된다.

대형 유통기업도 참여한다. 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롯데슈퍼 등 슈퍼마켓, CU·이마트24·세븐일레븐·GS25 등 편의점에서는 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

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을 개최하며 올리브영은 중소기업 제품 제조업체 판촉을 위한 할인전을 준비했다.

지역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타이어 제조업체 3사(한국·금호·넥센)도 할인행사를 통해 동행축제 캠페인에 참여한다. '결작떡볶이', '땅사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업체들도 이번 동행축제에 처음으로 동참한다.

한편 중기부는 경품 이벤트를 마련,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단일 제품 기준 3만원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캐스퍼'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구매인증 이벤트는 1~14일 진행된

다.

또 동행축제 홍보대사 '라비던스'가 부른 캠페인송에 맞춰 흥을 표현하는 약 20초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81명에게 갤럭시 S23과 10만원 상당 뷰티 제품 등을 지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영업이익 1년새 9990% 급증

1분기 538억 '10년만에 최대'...판매 단가 상승·수량 확대 등 영향

금호타이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30일 금호타이어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9961억원, 영업이익은 5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판매 단가 상승과 판매 수량 확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8%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반비를 비롯한 각종 판매비가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

기(5억원) 대비 9990% 급증했다. 이는 고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 글로벌 판매 가격 안정화,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 효과로 분석된다.

올 1분기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은 지난 한해 영업이익인 231억원의 두 배를 뛰어 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 생산 및 확대,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전략을 통해 연간 매출 3조5592

억원, 영업이익 231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된 실적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최근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27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국내외 완성차업체 공급 물량 증대와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비용 구조 또한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1602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제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난 28일 금요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최정욱 JM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160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와인의 세계화와 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는 최정욱 대표는 이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했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한 이후 지난 33년 간 매주 금요일

기업 CEO 등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회원사나 조찬포럼 연가회원은 무료로 청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사를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당회 2만원의 참가비를 내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12일 김영록 전남도도지사를 초청해 160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원화 가치 하락 브레이크가 없다

4개월새 2.7% 떨어진 달러당 1337.7원... 26개국 중 하락률 3위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주요 26개국 통화 중 세 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외환시장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37.7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말(1301.9원)과 비교해 2.7% 절하됐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달러 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가운데 달러 대비 세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 페소(-6.1%)와 러시아 루블(-2.8%)만 원화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고물

가 고금리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원화의 하락 폭이 두드러진 셈이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무역수지 악화가 꼽힌다.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가 41억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역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악화에 올해 경상수지마저 1~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외환당국의 대책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달 중순 당국은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를 신규로 설정했다. 달러 매수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스와프 형식으로 흡수해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막자는 의도다.

국민연금은 거래 금융기관에 정부를 추가해 정부와 직접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터놓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주요 수급 주체 등에 대응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돕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비 오늘부터 또 인상

연초 대비 2.63% 올라

이달부터 건설공사 표준단가가 올 연초보다 2.63%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30일 공고했다.

공정 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바뀐 물가 보정 방식이 적용됐다.

건설 물가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10명 중 3명은 '근로자'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가운데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최근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1496만명이다.

2013년 131만명에서 2017년 154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뒤 2020년 144만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175만명, 지난해 160만명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은 2013년 26.4%에서 작년 34.8%로 꾸준히 높아졌다.

어수봉 이사장은 "근로자들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로또복권 (제106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8 19 23 32 45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52,593,938 14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58,415,125 74
3	5개 숫자일치	1,386,821 3,11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561
5	3개 숫자일치	5,000 2,416,212



이창양 장관, 현대차 로봇기업 방문
지난 28일(현지시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개발 핵심 거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해 다양한 첨단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로봇산업의 글로벌 혁신 동향 및 국내 관련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창양 장관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동작 시연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